

배낭여행에서 만난 친구,
뺑뺑을 본 순간 우리는 확신했다
“한국인이시죠?”

젊음의 새웃을 같이잡자 — BANG BANG

< 1992.4.16. 1면 >

한겨레신문

발행처: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6-25

The Han-Kyoreh Shimmun

전화안내 (02) 710-0114 • FAX 710-0310 • 광고국 (02)

군투표부정 철저규명 촉구

야당·재야단체 이일병 석방 이중위 징계방침 철회도

14대 총선에서의 군 부재자투표 부정 문제로 국민적 의혹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과 재야 사회운동 단체들이 일제히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. 야당과 재야 사회운동 단체는 14일 국방부가 국군통신사의 투표부정을 시인함으로써 24 총선에서의 광범위한 군 부재자투표 부정 의혹이 사실로 되고 있다면서 부정을 폭로·원천적으로 일벌·석방과 이중위의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. 야당은 이날 군 부재자투표 부정 문제 등 최근의 정치현안과 관련해 긴급 당무회의를 열어 대안 논의의 끝에 통신사령부의 부정을 언론에 제보한 이원섭의 즉각 석방과 군 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처음 폭로한 이중위를 징계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노대통령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. 야당은 회의에서 “군 내부의 부패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

라도 두 사람을 즉각 석방하고 징계를 철회하라”고 촉구했다. 민주당은 또 △부재자투표 부정, 안기부 흑색선전물 살포, 광범한 관권선거 등 총체적 선거부정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앞에 사과할 것 △부재자투표 부정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하고 국방장관·기무사령관을 해임할 것 △부재자투표 부정을 감시·집행한 기무사를 군의 민주화를 위해 즉각 해체하고 3군방첩대로 환원할 것 △안기부 흑색선전물 살포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수사할 것 등을 항의서한에 포함시켜 대통령에게 요구하기로 했다. 국민당도 조순환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에서 “국방부가 군 부재자투표 부정 의혹에 대해 통신사령부 예하부대의 대리투표만 시인한 것은 사건을 은폐·축소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”이라며 “그러나 국방부가 당초 부정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가 일부 부정사실

을 시인한 것은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한 출발점으로 이지문 중위의 진술 및 방공포사령관의 발언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”고 말했다. 한편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“군부대 내 선거부정을 공개한 시대의 양심 이원섭 일병을 구속한 것은 국방부가 현역군인들의 부재자투표 부정을 은폐·호도하려는 또하나의 국민 배신행위”라며 “군 부재자투표의 즉각적인 진상 공개와 책임자 처벌, 이 일병 석방이야말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”이라고 지적했다.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도 논평을 통해 “군은 원천적이고 조직적인 선거부정을 호도하기 위해 진실을 밝힌 이 일병을 구속했다”며 “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를 위해 이번 총선에 나타난 일련의 부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”고 촉구했다.

민주주의 민족통일 부산연합도 성명을 발표해 △이 일병 석방 및 부정선거 사실 폭로사범 신변 안전 보장 △법국민적 진상조사단 구성 △군대 안 부정선거 사실 전면공개 등을 요구했다. 부산·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과 부산공선협, 부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, ‘장재원·양영진 추모사업회’도 이날 성명을 내고 △최세창 국방장관 사퇴 △국군기무사 해체 등을 요구했다. **민변, 이일병 변호받기로**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5일 이원섭(21) 일병의 변호인 구성 문제를 논의한 끝에 이지문 중위의 변호인이었던 안상은 변호사에게 이 일병의 변호를 맡기기로 했다. 이에 따라 안 변호사는 16일 정식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기로 했으며 15일 오후 국방부를 방문해 합동조사단 관계자를 만나 “16일 오후 가족과 변호인 접견을 약속받았다”고 밝혔다.



이 일병의 어머니 <한겨레신문>에 제보한 뒤 지난 10일 구속된 이원섭 일병의 어머니 고경애씨가 15일 “죄없는 원심이든 석방돼야 한다”며 안타까운 심경을 밝히고 있다.

후보-총재 역할분담 합의

민정계 중진모임 “당직없이 대선에만 전념”...단일화 가능성 높아져

계의 대통령후보 단일화를 위한 중진모임은 15일 7차 회의를 열어 후보와 총재직 등 역할분담에 합의함에 따라 김대중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졌다.

최 의원은 어밤에 “오는 8차 회의에서 후보와 총재직 등 역할분담에 합의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또는 당직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”라고 반문한 뒤 “반드시 단일후보가 선정될 것으로 낙관한다”고 내다봤다.

도 배제할 수 없다. 한편 박철언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의 불출마 뜻을 밝히고 “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것이고 안철수도 포함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